

#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 성 명 (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 상황에서 ㉠에 어울리는 ‘공감하며 말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 정말 한심하구나.
- ② 잘한다. 지금까지 벌써 몇 번째니?
- ③ 많이 속상하겠다. 어디서 잃어버렸니?
- ④ 그럴 줄 알았어. 어쨌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2.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굳이      ② 같이      ③ 해돋이      ④ 달맞이

3.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벚꽃이 매우 예쁘다.

- ① 산에는 봄나물이 많다.
- ② 나는 시장에서 봄나물을 산다.
- ③ 사람들은 산에서 봄나물을 캔다.
- ④ 동생은 봄나물을 맛있게 먹는다.

4.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 ① 새해가 되니 마음이 새롭다.
- ② 나는 들길을 천천히 걷는다.
- ③ 하늘은 파랗고 햇별은 따사롭다.
- ④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흩날린다.

5. 다음 ㉠~㉣ 중 높임 표현이 바르지 않은 것은?

영호: ㉠ 선생님께서 너 지금 상담실로 오시래.  
 민지: 응? ㉡ 선생님께서 이리로 오신다고?  
 영호: 그게 아니고, ㉢ 상담실에서 널 기다리고 계셔.  
 민지: 아, ㉣ 지금 바로 가겠다고 말씀드려.

-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적인 언어의 특성은?

(가) “누가 개를 개라고 했느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 앤드루 클레먼츠, 『프린들 주세요』 -  
 (나)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 ① 언어의 예술성      ② 언어의 역사성
- ③ 언어의 경제성      ④ 언어의 사회성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 지역의 향토 음식인 '비빔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	비빔밥의 의미, 유래, 재료, 만드는 방법
㉢	2016년 〇〇월 〇〇일 ~ 〇〇월 〇〇일
㉣	- 도서관에서 '비빔밥'과 관련된 책을 찾아봄 -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함 - 비빔밥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함

7. 윗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메모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 목적      ② ㉡ 조사 동기
- ③ ㉢ 조사 기간      ④ ㉣ 조사 방법

8.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로 바른 것은?

- ① 조사한 자료를 과장하여 써도 된다.
- ②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③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도 된다.
- ④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베껴 써도 된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먼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sup>1)</sup>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1) 침범: 몸에 칩덩굴 같은 어름어름한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평화롭게 살아갈 날을 소망한다.
- ③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④ 현대 도시 문명의 편리함을 예찬한다.

10. □ 안에 들어간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해: 밝고 희망찬 존재
- ② 달밤: 화합과 화해의 시간
- ③ 청산: 고통스러운 현실
- ④ 양지: 갈등과 대립의 공간

11. ㉠에 쓰인 비유법과 다른 것은?

- 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 ②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③ 분수처럼 흘러지는 푸른 종소리
- ④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기사를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조금도 주관성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야만 정확한 보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 객관적이기보다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이기 때문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보도일수록 주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도 ㉢모순이 아니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  
 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봐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양심적  
 이고자 하는 언론인이 때로 형극<sup>1)</sup>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송건호, 「신문과 진실」 -

1) 형극(荊棘): 고난이나 장애 따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 ㉠에 들어갈 말은?

- ① 객관적    ② 절대적    ③ 주관적    ④ 강압적

1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② 양심적이고자 하는 언론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 ③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 내용이 달라 지기도 한다.
- ④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 하기 때문이다.

14.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사태(事態):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 ② ㉢ 모순(矛盾): 두 사실이 이치에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
- ③ ㉣ 가치(價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 ④ ㉤ 유리(有利): 이익이 없음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고유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고유 언어를 일반적으로 한국어라고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어라고 한다. 한국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민족이 사용하는 동안에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난 말을 방언 또는 사투리라고 한다. 방언에는 모든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있다.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방언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나라에서는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는 말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 성낙수, 「표준어와 방언」 -

15. 윗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 ②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 ③ 자신의 일상을 반성하기 위해서
- ④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16.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온 고유의 언어를 한국어라고 한다.
- ② 오랜 기간 사용하는 동안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 말을 방언이라고 한다.
- ③ 의사소통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말을 사투리라고 한다.
- ④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는 말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한 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1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또는
- ② 그래서
- ③ 왜냐하면
- ④ 예를 들면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랑채가 퇴락하여<sup>1)</sup>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의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처음 비가 썰 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sup>2)</sup>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된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sup>3)</sup>들은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나는 ㉡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sup>4)</sup>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

- 1) 퇴락하여: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져서.
- 2) 들보: 대들보 건물외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 위를 건너지른 나무.
- 3) 재목: 목조의 건축물·기구 따위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
- 4) 도탄: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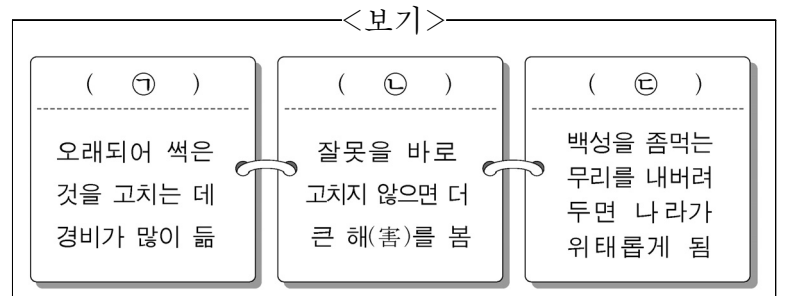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깨달음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 ② '주장-경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경험과 성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있다.
- ④ 의문형으로 마무리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9. ㉢에 느낀 것<sup>㉢</sup>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
- ② 재산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 ③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 ④ 백성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20. 윗글의 흐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       |     |     |
|-------|-----|-----|
| ㉠     | ㉡   | ㉢   |
| ① 사람  | 행랑채 | 정치  |
| ② 정치  | 사람  | 행랑채 |
| ③ 행랑채 | 정치  | 사람  |
| ④ 행랑채 | 사람  | 정치  |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온 열여섯 살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의 점원이다. 어느 날, 수남이는 수금하러 갔다가 세워 둔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젊은 신사의 차에 흠을 내게 된다. 신사는 수리비로 오천 원을 배상하라며 자전거를 묶어 둔다. 수남이는 구경꾼들의 부추김에 신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들고 가게로 도망쳐 온다. 주인 영감은 자물쇠를 깨뜨리며 잘했다고 칭찬한다.

[A]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쁜 짓은 또 뭐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잔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는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뒤통수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수남이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 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중략>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알았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남이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 커녕 손해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텃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아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동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점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 ② 갈등을 해소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온 소년의 이야기다.

22. [A]에 드러난 주된 갈등은?

- ① 신사의 내적 갈등
- ② 수남이의 내적 갈등
- ③ 신사와 주인 영감의 외적 갈등
- ④ 수남이와 주인 영감의 외적 갈등

23. 윗글의 ‘수남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이 부도덕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 ②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인 영감에게 실망하였다.
- ③ 자신은 도둑질한 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④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S# 93. 병원 병실 / ㉡ 밤

경숙: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멋대로 굴러 가면서…….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럼 난 살 수가 없을 거 같았거든. ㉢ (눈물을 떨구며) 애가 기억하더라고. 옛날에 동물원에서 잃어버렸던 걸……. 기억나지, 당신도? 사실은 말야, 그때 내가 초원을 버렸던 거야. 사람들 틈에서 손을 놓았지.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 살자고 애를 버렸던 엄마가 이제 또 제가 살려고 애를 그렇게 한평생 못살게 군 거야.

희근: ㉣ 당신 그때 스물일곱이었어.

경숙: 지금은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 애가 힘들어도 힘들단 소리를 안 한대. 내가 늘 그랬거든. 초원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지? 힘들지 않지? 좋지? 좋아하지? 십오 년을 그렇게 애를 다그쳤어. 그래서 이제 힘들다, 하기 싫단 말을 아예 못 해. 어떡하지? 우리 초원이 불쌍해서……. 어쩔 초원은 엄마가 자길 또 내버릴까 봐 그렇게 열심히, 힘들단 소리도 못 하고 지금껏 산 거 아닐까, 여보? 어떡하지? 그럼 나 정말 지옥 갈 거야, 그렇지?

- 정윤철, 송예진, 윤진호, 『말아톤』 -

24.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숙은 초원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다.
- ② 경숙은 초원을 다그쳐 왔다고 생각한다.
- ③ 초원은 힘들다는 소리를 잘하는 편이다.
- ④ 경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장면 번호
- ② ㉡: 시간적 배경
- ③ ㉢: 지시문
- ④ ㉣: 해설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